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하는 이유는?

내수침체로 생존에 큰 타격때문

509개사 대상 방문조사 결과, 월 매출 31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소상공인연합회가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이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취지는 인정하나,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은 망해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상 때문이다.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3.3%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

르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 평균 고객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상공인 업계는 만약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매출 236000여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에 민연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금품허용가액 적정수준은 어떻게 될까.

응답자의 63.9%는 금품허용가액 적정수준에 대해 5~10만원이라고 답했다.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7만원 이상 금품허용가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장 7만원 이상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명절 특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김영란법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법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손님맞을 준비 진행 중 20일 오전 서울 중구 두타면세점에서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두타면세점은 두산타워 9개층을 사용하며, 총 면적은 1만6825㎡(약 5090평) 규모다.

수협, 은행 독립 본격 착수

개정안에 자회사로 분리해야

수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1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협이 은행 자회사 분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수협은 20일 "10월경까지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은행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은행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뒤 추가자본을 확충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III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 기준이 곧바로 적용될 경우 수협은

행은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자본금 확충이다. 수협은 수협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약 2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환 의무가 있던 1조1500억원을 출자 전환해 줄 예정이다. 또 수협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5500억원을 조달한다. 또 3500억원 정도는 자산 매각, 임직원 출자, 조합 신규 출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수협은행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전북은행, 부부의날 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전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유진)와 함께 행복한 가정지원을 위한 '부부 사랑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다짐'이라는 부부의 날의 의미를 전하고, 전북은행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계기였다"면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지역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연일 30도 오르내리면서 여름 상품 '불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면서 소설·오븐마켓에서는 피서를 위한 여름 패션 상품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인해 여름 패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해졌기 때문이다.

20일 티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5월12~18일) 여름 패션 상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9% 증가했다. 특히 수영복의 매출은 68% 늘었다.

이밖에 래쉬가드(32%), 샌들(16%), 선글라스(16%), 냉장고바지(14%)의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1주와 직전 1주를 비교했을 때 샌들(56%), 래쉬가드(42%), 냉장고바지(40%), 선글라스(28%), 수영복(24%)순으

패션 아이템 매출 증대

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여름관련 패션 아이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포도 최근 1주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자 86%, 래쉬가드 52%, 선갑 13% 판매가 증가했다. 직전 1주와 대비해서는 샌들이 31% 선갑이 25% 냉장고바지가 14% 판매가 늘어났다.

오븐마켓도 비슷한 양상이다.마켓에서도 최근 일주일 여름 패션 상품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2% 늘었다. 특히 해당기간 아동 수영복·수영용품이 416% 워터레깅스가 154% 판매가 오르면서 큰 인기를 보였다.

이밖에 여성 핫팬츠(53%), 남성 무지 반팔티(61%), 아동 수영모자(98%), 아쿠아슈즈(30%), 남성 래시가드(26%) 등이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최근 일주일 여름 패션 상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7% 상승했다. 특히 린넨·마 재킷은 127%, 래쉬가드는 159%, 수영복은 82% 냉장고바지는 78% 매출이 올랐다.

김준수 11번가 의류팀장은 "이른 초여름 날씨에 여름 패션잡화를 앞장져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래쉬가드, 샌들부터 봄·여름 비즈니스 캐주얼 패션 효과 아이템 린넨 소재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 층이 전년 대비 빨라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사후피임약 구입하려면 앞으로도 의사처방 받아야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구입하려면 앞으로도 종전의 방식대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현행대로 '전문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에 복용하는 사전피임제는 '일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 전문약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말한다.

의약품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약품으로 유지한 것은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피임제는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오남용 가능성과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약품안전관리위원회 2013~2015년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했다.

/인진수 기자

60명 참석 건강특강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9일 전주 영화호텔에서 제2회 'JB Card'와 함께하는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우수고객 6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홍혜걸 의학박사의 수준 높은 강연과 홍혜걸 의학박사의 수준 높은 강연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홍혜걸 의학박사는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고, 한국인의 최대사망원인으로 암과 심혈관질환을 꼽으며 질병의 발생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소개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 '리더스포럼' 성황리 마무리

60명 참석 건강특강 등

특히,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의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간에 소통이 되는 시간을 마련해 행사의 큰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능케 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럼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의 창조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격월로 리더스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능케 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럼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의 창조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격월로 리더스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